

# 愚伏 鄭經世와 尙州 지역의 퇴계 학맥

崔 在 穆\*

## • 目 次 •

1. 머리말 : '상주', 그리고 '지역'·'학맥'에 대한 논의
2. 우목 학문계통의 형성
  - 1) 우목과 서애의 관련성
  - 2) 우복의 교유(交遊) 인물, 그리고 당색(黨色)
3. 우복의 가계, 생애, 사상
  - 1) 가계
  - 2) 생애
  - 3) 사상의 주요 방향
4. 우복학의 계승자들: 상주 지역의 퇴계 학맥의 광경
  - 1) 우복 학맥의 선별에 대한 논의
  - 2) 상주의 우복 학맥
5. 맺음말

## 1. 머리말: '상주', 그리고 '지역'·'학맥'에 대한 논의

이 글에서 논의할 것은 「우복 정경세와 상주 지역의 퇴계 학맥」이다. 다시 말하면, 「퇴계학을 계승하는 우복이 상주 지역에 거처함으로 인해 형성된 학맥」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좁은 의미로는 상주지역에서 이뤄진 「우복의 학맥」을 연구하는 것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우복이 퇴계학의 계승자이므로, 상주 지역에 「퇴계의 학맥」이 어떠하였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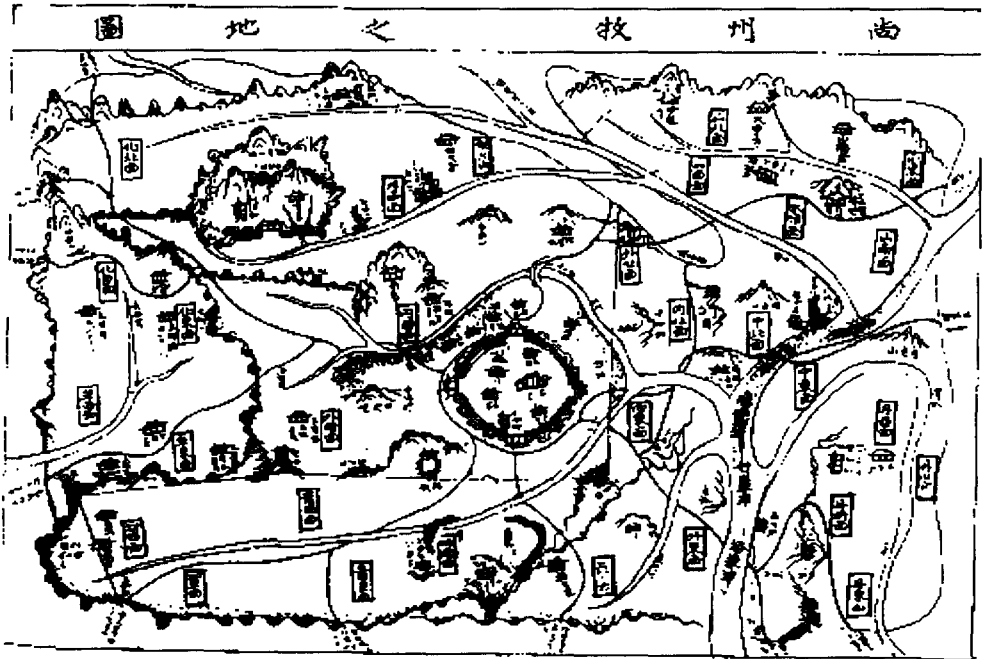
이러한 학맥은 인위적으로 형성된 것이라기보다는 '지리적'이며 그런 의미에서 '자연적'이다. 그것도 '지역'의 학맥, '지방'의 사상적인 계보를 더듬는 것으로

\* 영남대학교 인문학부 조교수.

서, 조선시대 성리학의 저변화와 그 전체적인 지도(地圖)를 그려내는 좋은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상주라는 지역의 학맥과 학문적 풍토가 곧 '불변하는 어떤' 상주지역의 특색(地域色) 즉 본질적인 것을 보증하고 확정짓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혀둔다. 왜냐하면 한 지역의 학맥과 학문적 풍토는 '이론적 교류'와 '학술적 상호소통'이라는 면에서 폐쇄적·고정적이 아니라 개방적·가변적인 것으로 보아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여지도서(輿地圖書)』의 「경상도 상주」조목에는, 「상주는 동으로는 (의성의) 비안(比安), 남으로는 선산(善山) 및 금산(金山), 서로는 충청도 보은(報恩)과, 북으로는 함창(咸昌)과 경계한다. 서울(京)로부터 거리가 477리이다」<sup>1)</sup>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이중환(李重煥, 1690~1752)은 『택리지(擇里志)』의 「팔도총론」 중 「경상도」에서,

- 1) 국사편찬위원회 편, 『輿地圖書』下, (探究堂, 1973), 427쪽 : 東地比安界七十七里, 南至善山界三十九里, 金山界四十七里, 西至忠清道報恩界七十里, 北至咸昌界二十九里, 距京四百七十七里.  
그리고, 『여지도서』의 「尙州牧」 지도는 다음과 같다.



남쪽은 함창(咸昌) 들이고 함창 남쪽은 상주(尙州)이다. 상주의 한 명칭은 낙양(洛陽)이며, 재(嶺. 鳥嶺=새재) 밑에 있는 하나의 큰 도회지로서 산이 웅장하고 들이 넓다. 북쪽으로 조령과 가까워서 충청도·경기도와 통하고, 동쪽으로는 낙동강에 임해서 김해(金海)·동래(東萊)와 통한다. 말이 나르고 배가 실어 나르며 남쪽과 북쪽의 수로와 육로가 모여드는데, 이것은 무역하기에 편리한 까닭이다. 이 지방에 부유한 자가 많고 또 이름난 선비와 높은 벼슬을 지낸 사람도 많다.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 1563 ~1633)와 창석(蒼石) 이준(李峻, 1560~1635)이 모두 이 고을 사람이다. 상주 서쪽은 화령(火嶺)이고 화령 서쪽은 충청도 보은(報恩) 땅인데, 화령은 소재(蘇齋) 노수신(盧守愼, 1515~1590)의 고향이며, 동쪽에 있는 인동(仁洞)은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 1554~1637)의 고향이다. 남쪽에 있는 선산(善山)은 산천이 상주보다 더욱 청명하고 수려하다. 그래서 속담에 『조선 인재의 반은 영남에 있고, 영남 인재의 반은 이 한 선산(一善)에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문학하는 선비가 많았다.<sup>2)</sup>

라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우복 정경세는 그야말로 상주 지역을 대표하는 학자이다.

우복은 동아시아의 신유학자(新儒學者, Neo-Confucian) = 성리학자(性理學者)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그의 학문적 바탕은 기본적으로 「정주학(程朱學)」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가까이서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 1542~1607)에게서 배워서 서애의 학문에 맥락이 닿고, 또한 「퇴계의 학문을 서애를 거쳐 자신이 계승하고 있음을 자각·자임」<sup>3)</sup>하고 있었듯이, 「퇴계학」에도 맥락이 닿는 것은 당연하다. 그만큼 그의 사상은 중층적이고 다원적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지역색’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출생과 주거라고 하는 어떤 ‘지리적’ 제약성이 한 사상가의 학문 내용에 얼마만큼 직접적으로는 영

2) 南則爲咸昌野, 咸昌之南爲尙州, 尙州一名洛陽, 嶺下一大都會也, 山雄野濶, 而北近鳥嶺, 通忠清京畿, 東臨洛東通金海東萊, 馬運船載, 而南北水陸走集, 便於貿遷故也, 地多富厚者, 又多名儒顯官, 鄭愚伏經世·李蒼石峻, 皆是州人, 州西則火嶺, 嶺西則忠清報恩地, 火嶺爲盧蘇齋守愼之鄉, 東則仁洞, 爲旅軒張顯光之鄉, 南則善山, 山川比尙州尤清明穎秀, 故諺曰朝鮮人才半在嶺南, 嶺南人才半在一善, 故舊多文學之士.[번역은, 李重煥, 「擇里志」, 『韓國의 思想 大全集』·24, 鄭然倬 옮김, (同和出版社, 1985, 重版), 192쪽 참조. 단, 원문과 대조하여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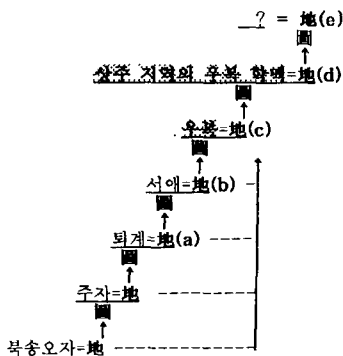
3) 都珖淳, 「정경세(鄭經世)의 인물과 학문 사상」, 東方學會 편, 『嶺南學派의 研究』, (경상북도, 1998), 463쪽.

향을 끼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다만, 학맥상의 '중심'에 해당하는 논의들이 지역이라는 이른바 '주변'으로 이동하였을 때에, 그것도 어떤 '특정 인물'과 그를 둘러싼 관련 인물들에 의해서, 과연 무엇이 어떤 식으로 수행되는가를 문제삼을 경우, 윤곽적으로 현저하게 제시된 어떤 '특색' 혹은 '특징'은 '지역적 전개'의 색채=지역색'으로서 규정되어도 좋을 것이다. 다만 그것은 본질화(실체화)할 수 없는 가변적인 것이며 폐쇄적이라기보다는 개방적 성격의 것으로서 이해해야 할 것<sup>4)</sup>이다.

그러나 사실 여기서 특질이라는 것도, 지역에서 학맥의 계승에 초점을 맞추어서 볼 때, 평면적인 학문적 흐름으로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그것은 지역의 학맥이 단순히 어떤 '중심'에서 그에 수반하는 '주변'으로 라는 이해의 도식 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심에 해당하는 어떤 학문'을 '지(地, ground)'라고 한다면 '그 지역적 전개'는 그것(地) 위에 만들어진 '도(圖, figure)'이며, 그 다음의 전개는 이것(圖)을 토대로 하므로 그 다음의 계승자로서는 이 도가 바로 지가 되고 그 계승자들이 만들어 가는 학문과 사상은 또 다른 의미와 논리를 지닌 도가 된다고 볼 수 있다.<sup>5)</sup> 그렇다면 「학맥의 본원=중심」, 「학맥의 전개=주변」이라는 이른바 이분법적인 분별의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중심」에서 「주변」(혹은 지역)으로 라는

4)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서울과 지방의 문제에서 이미 개략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다. [최재목, 「매일시론: 지금 우리에게 '서울'은 희망인가?」, 『매일신문』(2000년 9월 22일자)을 참조 바람].

5) 이것을 도표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도식적 이해보다는 중심의 생산, 재생산의 반복이 오히려 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생산, 재생산을 반복하면서 본래 지와 도와는 다른 새로운 의미와 문맥의 무수한 지와 도가 생성되어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각각의 지도들은 모두 주변이 아니라 하나의 '중심'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맥의 전개도 중심대 주변 혹은 상부에서 하부로라는 평면적 단선적인 이해의 방식이 아니라 '종횡적(縱橫的) 소통'과 '중층적(重層的) 구축'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아시아의 신유학자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우복 정경세의 학문은 멀리는 「주자학(朱子學)」에 근본을 두고 가까이서 서애(西厓)에게서 배워 「서애학(西厓學)」에 맥락이 닿고 또한 멀리는 퇴계를 사숙(私淑)하여 「퇴계학」에도 맥락이 닿고 있다. 또한 그의 사상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의 예론(禮論)에서 보듯이, 당시 국내외와 '고금(古今)'의 이론을 두루 살피면서 자신의 사상적 내용을 만들어 가는 특징을 지닌다.

이렇듯 한 사상의 지역적 전개 속에 들어 있는 '수용 - 전면적 혹은 부분적·선택적 -, '굴절', '토착화' '변용' '왜곡' '비판' 등의 다양한 현상들은 그 각각의 새로운 지도를 만들어 가는 주체적인 노력의 산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우복 정경세에 의해 펼쳐지는 상주 지역의 퇴계 학맥도 이런 차원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하여 「우복 정경세와 상주 지역의 퇴계 학맥」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다만, 이 논문에서 사용되는 관직명은 현대의 관직명으로 일일이 바꾸는 것이 정상이나 시간관계상 우선 그냥 쓰기로 하며, 인물에 관한 일반적인 기술과 생몰 연대 등은 종래의 정리된 문헌<sup>6)</sup>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둔다. 그리고 우복의 자료는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에서 간행한 『우복집(愚伏集)』이 있으나, 이후 「한국문집총간(韓國文集叢刊)」·68로 간행된 영인본 『우복집』을 저본으로 한다.

6) 정신문화연구원 편, 『민족문화대백과사전』를 주로 참조하고, 기타 「참고문헌」에 밝힌 여러 사전류도 폭넓게 참조하였다.

## 2. 우복 학문계통의 형성

## 1) 우복과 서애의 관련성

퇴계의 훌륭한 제자이자 임진왜란 때 국난극복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서애 유성룡이 상주에 목사(牧使)로 부임하는 것은 상주가 퇴계학의 보루가 되는 전기를 마련하는 큰 의의를 갖는다. 당시 남인(南人)이었던 그는 39세 때 조선 전기 61번째의 상주 목사로서 1580년(선조13년) 윤5월에 부임하여, 40세 되는 1581년 1월에 선조의 요청으로 홍문관 부제학에 취임하는 탓으로<sup>7)</sup> 이임하기까지 8개월의 재임 기간 동안(아래의 표 참조)<sup>8)</sup> 상주에서 유학(儒學) 진흥 위주의 행정을 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였다.

## 서애의 尙州 牧民官 관련 내용

순서	성명	취임 시기	나이	직위	이임시기	재임(년)	이임 사유
61	柳成龍	1580년(宣祖13) 윤5월	38	牧使	1581년 1월	0.08	京職 (弘文館 부제학)

그가 이곳 수령으로서 부임한 것은 그의 노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고향 의성현과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매월 초하룻날 향교에 도착하여 여러 교생들을 모아놓고 유학의 기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각 면에는 훈장을 두고 촌락의 자제들을 가르치게 하였다 한다.<sup>9)</sup> 상주에서 맺어진 서애의 사제관계는 그 뒤에도 계속적으로 교류하는 형태로 이어졌다. 서애의 학맥은 상주의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1563~1633)에게 계승되어 예학(禮學)을 일으켰다. 이 우

7) 『西厓集』권3, 한국문집총간52, 66쪽, 「乞郡叟養疏 庚辰正月」 참조.

8) 이에 대한 분석은 韓基汶, 「尙州牧民官行績篇: II 地方制度와 牧民官」, 『尙州 咸昌 牧民官』, (상주시·상주산업대학교 상주문화연구소), 53~55쪽을 참조 바람(표는 이 연구의 일부를 수정한 것임).

9) 국사편찬위원회 편, 『輿地圖書』下, 435쪽, 「慶尙道 尙州牧 名宦」: 萬曆庚辰爲牧使, 以興學爲主, 月朔到鄉校, 會諸生行揖讓之禮, 各面置訓長以敎家.



李滉 → 柳成龍 → 鄭經世 → 柳軫 → 柳元之 → … → … → 柳尋春 → 柳壽睦

↓

沙西 金湜

省克堂 金弘徵

梅湖 曹友仁

月澗 李埶

蒼石 李垞

可畦 趙翊

月峰 高仁繼

道川 黃時幹

南溪 康應哲

虛齋 孫胤業

## 2) 우복의 교유(交遊) 인물, 그리고 당색(黨色)

우복과 교유했던 사람들로서 두드러진 인물은 다음과 같다.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 한음(漢陰) 이덕형(李德馨), 오리(梧里) 이원익(李元翼), 여헌(旅軒) 장형광(張顯光), 한강(寒岡) 정구(鄭述),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만취(晩翠) 오억령(吳億齡), 일송(一松) 심희수(沈喜壽), 악재(樂齋) 서사원(徐思遠), 월간(月澗) 이전(李埶), 창석(蒼石) 이준(李垞), 졸재(拙齋) 신식(申湜), 소암(疎庵) 임숙영(任叔英), 동리(東籬) 김윤안(金允安), 구암(久庵) 한백겸(韓百謙), 유천(柳川) 한준겸(韓浚謙), 매호(梅湖) 조우인(曹友仁), 지봉(芝峯) 이수광(李睟光), 상촌(象村) 신흠(申欽), 월사(月沙) 이정귀(李廷龜), 현주(玄洲) 조찬한(趙縝韓), 석담(石潭) 이윤우(李潤雨), 송호(宋湖) 조정립(趙正立) 등이다. 그리고 이전(李埶), 이준(李垞) 형제와는 서애 문하의 동문이다.<sup>14)</sup>

14) 우복의 교유에 대해서는 李麗衡, 「愚伏의 生涯」, 『愚伏鄭經世先生研究』, 우복선생기념사업회 편, (태학사, 1996), 260~263쪽 참조.



그는 사우(師友) 관계에서 보면 남인(南人)이던 서애의 문인이라서 그를 남인 계열의 틀을 벗어날 수 없었다고 단정하기 쉽다. 그러나 위의 교류 인물에서 보듯이 서인(西人) 계열의 이항복, 김장생, 신희, 이정귀 등과도 교류(交遊)하였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그는 서인 송준길을 사위로 삼았다. 이런 까닭에 그는 남인 계열이긴 하지만 「당색(黨色)에 얽매이지 않은」 「초당적 입장」에서 국정에 임했던 것으로 평가받고, 따라서 남인들로부터는 물론 서인계 학자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진다.<sup>15)</sup>

### 3. 우복의 가계, 생애, 사상

#### 1) 가계

정경세(鄭經世)는 자호(自號)가 우복(愚伏)이고 자(字)가 경임(景任)이며 본관은 진양(晉陽)이다. 우복 정경세의 9대조 정택(鄭澤)은 고려말에 상주판관을 지냈고, 그의 아들 중 한사람, 즉 정의생(鄭義生)을 현재의 상주군 공성면 초전리에 머물러 살게 한 것이 인연이 되어 대대로 상주에 거주하였다. 우복이 상주에서 배출된 것도 이런 연유에서이다. 고조부 정번(鄭蕃)은 수의부위를 지냈고, 증조부는 정계함(鄭繼咸)은 좌승지에 추증되었다. 조부 정은성(鄭銀成)은 이조판서를 증직(贈職)하였는데, 유아(儒雅)로 소문이 났었다. 부친 정여관(鄭汝寬)은 좌찬성을 증직하였다. 모친은 합천 이씨로 강양군(江陽君) 요(瑤)의 후예인이자(李軻)의 딸이다.<sup>16)</sup>

15) 李章熙, 「愚伏 鄭經世 研究」, 『愚伏鄭經世先生研究』, 315과 319쪽, 그리고 李佑成, 「愚伏集 總敍」, 같은 책, 20~21쪽 참조.

16) 『愚伏集』, 한국문집총간68, 「別集」권10, 「行狀」, 570쪽 상단 참조.

『진양정씨(晉陽鄭氏) 어사공파(御史公派) 세계도(世系圖)』<sup>17)</sup>

澤 → 義生 → 孝翁 → 傑 → 克恭 → 蕃 → 繼成 → 銀成 → 汝寬 →  
經世 → ① 杺 → 道應 → 錫喬 → 胄源 → 仁模 → 宗魯 → …

② 樺

③ 櫟

④ 長女 ← 盧錫命

⑤ 次女 ← 宋浚吉(西人)

2) 생애<sup>18)</sup>

우복은 명종(明宗) 18년(1563)에 상주(尙州) 상울(上栗)[현재의 상주군 청리면(靑里面) 울리(栗里)]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기질이 있어 7세에 『사략(史略)』을 읽고 8세에 『소학(小學)』을 배웠는데, 불과 절반도 배우기 전에 문리가 통하여 그 나머지 글은 스스로 해독하였다 한다. 1578년(선조 11) 경상도 향시(鄕試)에 응시하여 생원과 진사의 초시에 합격하였고, 1580년 유성룡의 제자가 되어 학문에 진력하였다.

1582년 회시(會試)에서 진사에 뽑히고 1586년 알성문과(謁聖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하여 승문원부정자에 임명되었다. 1588년 예문관검열 겸 춘추관 기사관이 되었다가 곧 통사랑대교로 승진되었다. 1596년 이조좌랑에 시강원문학을 겸하였으며, 한때 잠시 영남어사의 특명을 받아 어왜진영(禦倭鎭營)의 각 처를 순시하고 돌아와 홍문관교리에 경연시독관·춘추관기주관을 겸임하였으며, 곧이어 이조정랑·시강원문학을 겸하였다. 정랑의직에 있을 때에 인사행정이 공정하여 현사(賢邪)를 엄선하여 임용 또는 퇴출하였으며, 특정인에게 경중을 둔 일이 없었다. 1598년 2월에 승정원우승지로, 3월에는 좌승지로 승진되었고, 4

17) 愚伏先生記念事業會編, 『晉陽鄭氏族譜·乾』, (大譜社, 1993) 참조.

1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참조하여 정리함.

월에는 경상감사로 나갔다. 경상감사 재임 시에는 영남일대가 임진왜란의 여독으로 민력(民力)이 탕갈되고 인심이 각박한 것을 잘 다스려 도민을 너그럽게 무마하면서 양곡을 적기에 잘 공급하여주고, 민풍(民風)의 교화에 힘써 도내가 점차로 안정을 가져오게 되었다. 1600년 영해부사가 되어 이 고을 풍습이 싸움을 잘하고, 남을 모략하는 투서가 심함을 근절시켜 민풍을 일신시켰다. 그해 겨울에 관직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왔다. 그 사이에 몇 번의 소명을 받았으나 잠시 상경하였다가 다시 귀향하였다. 당시는 당쟁의 풍랑으로 정계는 자못 시끄러웠다. 우복은 이 때를 기하여 관직을 사양하고 고향에 돌아와 학문연구에 전념하였으며, 마을에 존애원(存愛院)을 설치하여 사람들의 병을 무료로 진료하였다.

우복은 도학(道學)의 전수가 정몽주(鄭夢周)에서 창시하여 이황(李滉)에서 집성하였으며, 김굉필(金宏弼)·정여창(鄭汝昌)·이언적(李彦迪) 같은 여러 현인이 나와 정학(正學)을 강명(講明)하여 이들 모두 수백 리 안에서 큰 활약을 하였고, 상주는 또한 영남의 상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서원을 세워야 함을 역설하고 유생을 설득하여 도남서원(道南書院)을 창건하였다. 그는 이곳에 오현(五賢)을 종사(從祀)하여 후학으로 하여금 도학의 정통이 여기에 있음을 알게 하였다. 1607년 대구 부사로 나가 치적을 올렸고, 이듬해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즉위하면서 교서를 내려 우복에게 구언(求言)하였는데, 그는 이에 만언소(萬言疏)를 올려 사치의 풍습을 경계하고 인물의 전형(典型)을 공정하게 하며 학문에 힘쓸 것을 강조하였다. 1609년(광해군1) 봄에 동지사로 명나라에 가서 그 다음 해에 돌아오면서 병부(兵部)에 글을 올려 화약(火藥)의 매입을 예년의 갑절로 교섭하여 그 수입에 진력하였으므로, 특지(特旨)로 가선대부(嘉善大夫)의 칭호를 내렸다. 그해 4월에 성균관대사성이 되었고, 10월에 외직을 원하여 나주목사에 배명되어 12월 부임하는 날 다시 전라감사에 영전되어 그 뒤 도정(道政)에 전념하다가 이듬해 8월에 정인홍(鄭仁弘) 일당의 사간원 탄핵으로 해직되었다. 1623년 인조반정(仁祖反正)으로 정국이 일변되자 3월에 홍문관부제학이 제수되었다.

이후 우복은 대사헌·승정원도승지·의정부참찬·형조판서·예조판서·이조판

서·대제학 등의 관직을 거치면서 공도(公道)를 확장하고 요행을 억제하며, 인재를 널리 취하고 사론(士論)을 조화하여 국정에 심력을 기울이다가 인조(仁祖) 11년(1633)에 71세를 일기로 상주군(尙州郡) 시벌면(沙伐面) 매호리(梅湖里)에서 서거하였다. 그 해에 의정부 좌찬승에 추증되었다. 1660년에는 문숙(文肅)의 시호가 내려는데, 후에 유생들이 상소하여 문장(文莊)으로 고쳐 받았다.

상주의 「우산서원(愚山書院)」을 비롯하여, 경산의 「고산서원(孤山書院)」, 대구의 「연경서원(研經書院)」, 강릉의 「퇴곡서원(退谷書院)」 등에서 향사(享祀)되고 있다.

### 3) 사상의 주요 방향

이미 밝혔듯이, 우복은 서애의 수제자이며 퇴계학 재전(再傳)의 대표적 학자이다. 우복은 18세 되던 해(宣祖 13년, 1580년. 庚辰) 윤 5월, 상주 목사로 부임한 서애(당시 39세)의 문하에서 수학함으로써 사제간의 인연을 맺게 됨으로써, 그의 일생에서 커다란 학문적 전기를 마련한다.

우복의 학문은 멀리는 「주자학(朱子學)」에 근본을 두고 가까이서 서애(西厓)에게서 배워 「서애학(西厓學)」에 맥락이 닿고, 또한 좀더 거슬러 올라 「퇴계 선생은 동방의 주자이고 동방의 학문은 퇴계에 이르러 비로소 집대성되었다」<sup>19)</sup>고 평가하듯이, 「퇴계학」에 맥락이 닿는다. 그는 「퇴계의 학문을 서애를 거쳐 자신이 계승하고 있음을 자각·자임」<sup>20)</sup>하였던 인물이었으며, 또한 그는 퇴계 학파로서 그 학문적 전통을 전하는데 충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sup>21)</sup>

19) 鄭經世, 『愚伏集』, 한국문집총간68, 544쪽, 「별집」권8, 「附錄: 言行錄」: 先生嘗曰, 退溪先生是東方朱子, 東方之學, 至退溪而始集成.

20) 都珖淳, 「정경세(鄭經世)의 인물과 학문 사상」, 東方學會 편, 『嶺南學派의 研究』, (경상북도, 1998), 463쪽.

21) 예컨대, 1604년 10월에 서애는 퇴계학의 주요 텍스트였던 『朱子書節要』를 우복에게 전하고 나서 3년 후 세상을 떠났는데, 우복은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였다가 7년 후인 1611년 全羅監司 재임 중에 錦山에서 간행하여 전국에 보급시켰다. 이것은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렇듯 그의 사상은 북송의 다섯 선생(五子)에서 연원한 주자와, 그리고 주자에 뿌리를 둔 퇴계, 퇴계에 바탕한 서애가 공유하고 있던 「신유학(新儒學. Neo-Confucianism)」 즉 「성리학(性理學)」의 학문이해에 바탕을 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흔히 지적되듯이, 성리학은 두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 그 하나는 「리(理)」의 논의이고 다른 하나는 「례(禮)」의 논의이다. 동아시아 사회에서 전자는 성리학의 철학체계에서 핵심을 이루며 발전 혹은 변용해 갔고, 후자는 사회규범의 방향으로 진폭(振幅)을 넓히며 심화되어갔다. 우복은 이 「리」와 「례」의 「양면」을 다 지닌 학자<sup>22)</sup>였다. 물론 성리학자들의 예 의식은 성명역리(性命義理) 즉 「성리(性理)」의 학에 기반을 두고, 그 이념을 수행하는 하나의 방식이었다. 후자는 전자와 밀접한 관계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리와 예의 밀접한 관련 혹은 리에서 예로의 방향설정은 「원리(principle)」에서 「실천(practice)」과 「수행(discipline)」으로 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특질은, 8세가 된 그의 아들을 위해 일상 생활의 예절을 알기 쉽게 간추린 『양정편(養正篇)』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어쨌든, 우복은 우리 나라 17세기의 대표적 예학자 중의 하나이다. 주로 『예기(禮記)』에서 중요한 예의 문제를 스스로 제기하여 대답하는 형식으로 꾸민 『사문록(思問錄)』의 저술과 경연(經筵)에서 예의(禮儀)에 대한 뛰어난 해설을 통해<sup>23)</sup> 우복은 당시 예의 재인식과 연구, 실천으로 예학의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한강(寒岡) 정구(鄭述. 1543~1629),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1548~1631), 현석(玄石) 박세채(朴世采. 1631~1695)의 업적과 더불어 17~18세기를 「예학시대」로 특징 지우는데 크게 공헌하였던 인물이다.<sup>24)</sup> 그의 사상은 『우복집(愚伏集)』에 수록되어 있다.

22) 柳正東, 「愚伏의 儒學」, 『愚伏鄭經世先生研究』, 30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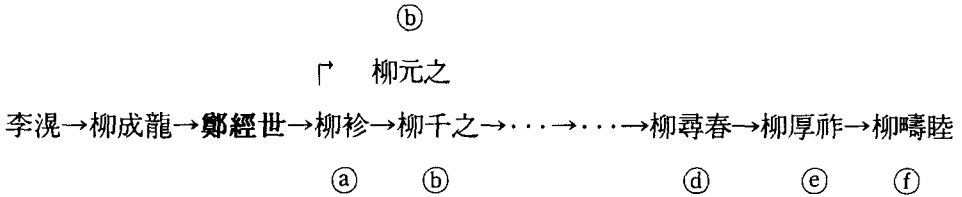
23) 陸萬中·沈奎魯 편, 「尙州(一)」[蔡弘遠 外, 『嶺南人物考』, 姜周鎭 편역, (探求堂, 1967)의 第四卷], 241쪽에는, 「悚庵 任學士 權英이 항상 말하기를 『經筵官』으로서 古今에 통한 이는 愚伏 鄭經世이다.」라고 있다.

24) 尹絲淳, 「愚伏(鄭經世)의 性理學 思想」, 『愚伏鄭經世先生研究』, 47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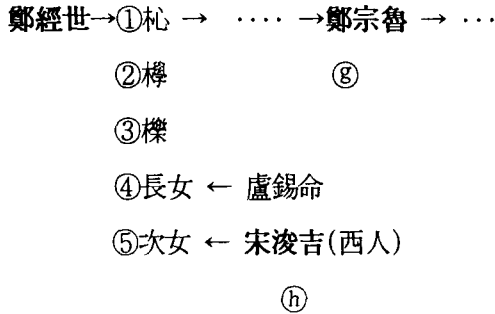
## 4. 우복학의 계승자들 : 상주 지역의 퇴계 학맥의 광경

## 1) 우복 학맥의 선별에 대한 논의

이미 논한 대로 서애의 학맥을 잇는 우복을 「서애의 가계」 속에 위치시켜 그 학맥을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우복의 가계에서 볼 때 학맥을 이를 만한 주요 인물은 다음과 같다.



그렇다면 「퇴계학을 계승하는 우복이 상주 지역에 거처함으로써 형성된 학맥」으로 검토해야 할 인물은 ①에서 ⑧까지이다. ①에서 ⑧까지의 가운데서 특히 유씨(柳氏) 가문의 인물들은 서애 학맥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다. 그리고 우복의 학맥을 서애의 학맥, 넓게는 퇴계 그리고 영남의 학맥이라는 차원에서 다양하게 생각할 여지가 항상 열려 있으므로 우복 그 자체에만 관련시키거나 또 위치지워 그 순도(純度)·순수성을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만, 우복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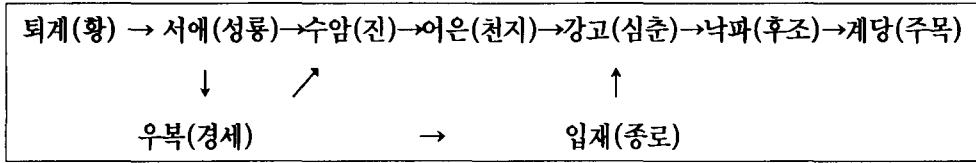
퇴계나 서애의 학문을 「지(地)」로 하여 사상적 「그림=도(圖)」를 만들었고, 또한 그가 그린 하나의 사상적 지도를 의식하면서(「地」로 여기며) 「도」를 그려간 그룹을 여기서는 포괄적으로 「우북학맥」으로 간주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계당(溪堂) 유주목(柳壽穆)은 그의 조부 강고(江皐) 유심춘(柳尋春)의 행장을 편집(撰)하면서 그의 학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생각건대 우리 문충공(文忠公. 西厓)은 퇴계 이황 선생에게 배웠다. 그리고 수암(修巖. 柳軫. 서애의 아들)·어은(漁隱. 柳千之. 수암의 큰 아들. 서애의 손자)이 두텁게 문하생을 내고 후손을 많이 남겼다. 수암은 또 우북 정(경세)선생을 좇아 배웠다. 정 선생의 학문은 나의 문충공(서애)에게서 얻었기에 세간에서는 퇴계 재전(再傳)의 적자(嫡者)라고 일컫는다. 돌아가신 아버지(府君. 즉 낙파(洛坡) 유후조(柳厚祚)임. 후조의 아버지 강고(江皐) 유심춘(柳尋春)은 27세 때 입재(立齋) 정종로(鄭宗魯. 우북의 6대손)의 문하에 들어감)는 입재선생(정종로)을 「우북 어르신네의 후손이자 우리 가(학)의 연원이다」라고 생각하시어, 마침내 이분(우북)에게 가서 따르셨다.<sup>25)</sup>

즉, 계당에 따르면, 서애 가문과 우북 가문의 교류로 만들어진 학맥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이것은 위에서 우리가 논의한 「우북학맥」 선별 작업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계당은 그의 아버지 낙파 유후조가 입재 정종로를 「『우북 어르신네의 후손이자 우리 가(학)의 연원이다』라고 생각하였고, 마침내 낙파가 우북의 문하생이 되었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수암」에서 「계당」 자신에 이르는 학맥이 가학과 중첩되면서 더욱이 우북학에 속함을 의식하고 그것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25) 柳壽睦, 「王考江皐府君家狀」, 『溪堂集』, (亞細亞文化社, 1984), 337쪽 : 蓋我文忠公, 學於退陶李先生, 而修巖漁隱, 篤生門庭, 垂裕後昆, 修巖, 又從愚伏鄭先生學, 鄭先生之學得於吾文忠公, 世稱陶山再傳之嫡者也, 府君以爲立齋先生, 愚翁之孫而吾家淵源也, 遂往從之.



김도기(金道基)가 『우복집(愚伏集)』등을 기초로 정리한 정신문화연구원 편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정경세」항목에서, 우복의 문하에서 배출된 사람으로서 「(1)全克恒① (2) 全明龍①, (3) 申碩蕃⑫, (4) 姜震龍①, (5) 黃紐⑩, (6) 洪鎬⑩ 등」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sup>26)</sup> 그런데 우복의 후학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좀 더 검토될 여지가 있다. 다시 말하면 우복이 세상을 떠나자 스승을 위해서 문인(門人)·문생(門生)·문하(門下)<sup>27)</sup>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쓴 「제문(祭文)」이 『우복집(愚伏集)』권17에 실려 있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위에서 든 이름들 이외의 사람들도 많이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진(柳珍), 송준길(宋浚吉), 김응조(金應祖), 홍호(洪鎬), 조희인(曹希仁), 이원규(李元圭)·광규(光圭), 조광벽(趙光璧), 이일규(李一圭)·덕규(德圭)·신규(身圭), 황덕유(黃德柔), 신즙(申楫), 정영방(鄭榮邦), 유원지(柳元之), 김추임(金秋任), 김기(金基)·기(壆)·보(堡)·승(陞) 등, 강교년(康喬年)<sup>28)</sup>(강조는기출 인물)

이 가운데서 지금 그 대략이나마 파악할 수 있는 인물은 이원규(李元圭)⑩, 조광벽(趙光璧), (李一圭)⑩, 황덕유(黃德柔)⑩, 신즙(申楫)①, 김추임(金秋任)

2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 699쪽.

27) 일반적으로 ①「門人」은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 弟子, 門下, 門徒, 門生, 門下生, 門弟子, 또는 再傳의 弟子를 말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우복보다 나이가 적으며 직접 그에게 교유하며 배운 사람들 같다. 그리고 ②「門生」은 보통 門人, 門下生과 같은 뜻으로 쓰이나, 여기서는 문하이면서 집안에 속하면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인 것 같다. ③「門下」는 門下生의 생략형으로 앞의 門人 혹은 門生과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인다. 다만, 여기서는 문인과 구별하여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門人)의 자제나 그에 해당하는 사람들인 것 같다. 다만, 보다 세부적인 것은 개별 인물들을 조사 검토하고 나서 밝혀져야 하겠으나, 「門人」·「門生」·「門下」는 제문을 쓰는 사람들이 단순히 편의적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되기도 한다.

28) 이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㉓이다. 그리고 우복의 사위인 송준길(宋浚吉)㉔도 그(우복)의 학문을 이어받는 사람 중의 하나로 간주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학문 계열의 차이나 상주지역이 아닌 관계로 생략한다.

또한, 영남지역의 인물을 수록한 『영남인물고(嶺南人物考)』의 「상주(尙州)」편<sup>29)</sup>을 보면, 우복에게 학문을 직접 배운 사람으로서는, 김정견(金廷堅)㉕, 조희인(曹希仁)㉖, 조우신(趙又新)㉗, 홍호(洪鎬)〔㉘〕, 전극항(全克恒)〔㉙〕, 김추임(金秋任)〔㉚〕 강용양(康用良)㉛이 있고, 그의 우복과 강론하고 서로 학문을 연마한 인물로서 조광벽(趙光璧)㉜이 나온다. 그리고 우복의 손자인 정도응(鄭道應)㉝도 소개되어 있다. 이들 모두 우복의 학맥으로 간주하고 소개를 하고자 한다.

따라서 우복의 학맥은, (1) ㉑에서 ㉔까지를 기본으로 하고, (2) 기타로서 ㉑~㉔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다만, (2)의 ㉑~㉔ 가운데에서 인적사항이 불분명한 ㉑전명룡(全明龍)과 ㉑강진룡(姜震龍)은 생략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3)

순서	관계	성명	수록처 및 쪽수	비고 (*는 既出)
1	門人	柳 珍	『愚伏集』(한국문집총간·68)「別集」卷十七(이하 같음), 605~606	*
2	(사위)	宋浚吉	606~607	*
3	門生	金應祖	607	
4	門人	洪鎬	607	*
5	門人	曹希仁	607~608	
6	門人	李元圭·光圭	608~609	
7	門人	趙光璧	609	
8	門人	李一圭·德圭·身圭	609~610	
9	門下	黃德柔	610	
10	門人	申楫	610~611	
11	門人	鄭榮邦	611	
12	門人	柳元之	611~612	*
13	門下	金秋任	612	
14	門人	金基 壑·堡·陞 등	612	
15	門下	康喬年	612~613	

29) 睦萬中·沈奎魯 편, 「尙州(一)」〔蔡弘遠 外, 『嶺南人物考』, 姜周鎭 편역〕, 191 ~ 259쪽을 참조.

㉠에서 ㉡까지, 그리고 (4) ㉠에서 ㉡까지의 22인을 들 수 있다.

위의 논의를 종합하여 「우복학맥」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는 시간과 조사의 어려움에 따라 이 글에서는 임시적으로 생략하였으나 차후 검토가 필요한 인물을 의미한다.




---

30) 이에 대해서는 「입재(立齋) 정종로(鄭宗魯)」부분을 참조 바람.  
31) 「상주의 우복학맥」 중 「기타의 계승자들」 ㉢ 「황유」를 참조 바람.

(鄭榮邦)

**金秋任**

(金基·壑·堡·勝)

(康喬年)

**金廷堅**

**趙又新**

**康用良**

## 2) 상주의 우복 학맥

### (1) 가학의 계승자

① 무참(無參) 정도응(鄭道應, 1618~1667): 광해 10년에 나서 현종 8년에 죽었다. 자는 봉휘(鳳輝), 호는 무참(無參), 본관은 진양(晉陽), 우복의 손자이다. 선조에 유일로 천거되어 교관(敎官), 사부(師傅)를 거쳐 참의에 이르렀다. 18세에 할아버지 우복의 상을 당하자 모든 예절을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따랐다. 소대명신행적(昭代名臣行蹟), 소대최어(昭代最語)와 약간의 유집(遺集)이 전한다.<sup>32)</sup>

② 입재(立齋) 정종로(鄭宗魯, 1738~1816) : 영조 14년에 태어나서 순조 16년에 죽었다. 우복의 6대손이다. 본관은 진주(晉州)이다. 자는 사양(士仰), 호는 입재(立齋)·무적옹(無適翁)이다. 함창(咸昌: 지금의 문경군 영순면)의 외가에서 태어났으며, 9세 때 외가에서 본가인 상주로 돌아왔다. 어릴 때는 가학을 전수받았다. 중년에는 대산(大山) 이상정(李象靖, 1711~1781)의 문하에 나가서 영남학파의 학통을 계승하게 된다. 벼슬길에 나가려 하지 않고 성리학 연구에 전념하였으나 학문과 지조 있는 행실로 여러 번 관직에 천거되었다. 52

32) 睦萬中·沈奎魯 편, 「尙州(一)」〔蔡弘遠 外, 『嶺南人物考』, 姜周鎭 편역〕, 258쪽 참조.

세 때는 광릉참봉(光陵參奉)에 제수되었다. 정조가 재상 채제공(蔡濟恭)에게 그의 인품을 물었을 때 채제공은 그를 “경학과 문장이 융성하여 영남 제1의 인물이라”고 칭송하였다. 이에 의금부도사로 특진되었다. 59세 때 사포서별제(司圃署別提), 60세 때는 강령현감·함창현감이 제수되었다. 벼슬을 사직하고 고향에 돌아간 뒤에도 사헌부지평과 장령 등의 직함이 내려오기도 하였다. 그는 평생을 성리학 연구와 강학, 저술에 힘썼다. 그의 문하에는 서애의 7대손인 강고(江皐) 유심춘(柳尋春, 1762~1834, 27세 때 입재 문하에 다님)과 응와(凝窩) 이원조(李源祚, 1792~1872), 정헌(定軒) 이종상(李鍾祥, 1799~1870) 강엄(康儼, ?~?) 등이 있다. 사후에 우산서원(愚山書院)에 배향되었다. 저술로는 『立齋集』과 『昭大名臣言行錄』 등이 있다. 저술로는 문집(『立齋集』)과 『소대명신언행록(昭大名臣言行錄)』 등이 있다.<sup>33)</sup>

## (2) 서애 가문 내의 계승자들

① 수암(修巖) 유진(柳珍, 1582~1635) : 선조 15년에 태어나 인조 13년에 죽었다.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계화(季華), 호는 수암(修巖). 서애의 셋째 아들이다. 임진왜란 뒤 아버지 서애에게 글을 배우고 광해군 2년(1610년)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나 1612년 해서지방에서 김직재(金直哉)의 무옥(誣獄)이 일어났을 때에 무고를 당하여 5개월간의 옥고를 치렀다. 1616년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세자익위사세마(世子翊衛司洗馬)에 제수되었으나 사양하였다. 그는 그의 다른 스승인 우복과 학문적 교류의 편의성 등으로 37세 때(1619)에 상주 낙동강변의 가사리로 이사하였다. 인조1년(1623년) 인조반정 뒤 다시 학행으로 천거되어 봉화현감이 되었다. 수령으로 있으면서 전묘(田畝)와 부세(賦稅)를 바로 잡았다. 이듬해 형조정랑이 되었는데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원옥(冤獄)을 해

3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0)』, 32쪽과 『儒教大事典』, 1374쪽. 기타, 『立齋集』과 玄相胤, 『朝鮮儒學史』, (민중서관, 1949), 劉明鐘, 『立齋 鄭宗魯의 太極動靜說』, 『朝鮮後期性理學』, (이문출판사, 1985)을 참조할 것.

결하여 판서 이서(李曙)의 경탄을 샀다. 1627년 청도군수가 되었다가 이듬해에 수포장인(收布匠人)에 대한 보고에 허위가 있다하여 파직 당하였다. 1634년 지평으로 있을 때 장령 강학년(姜鶴年)이 당시 서인정권의 정책을 크게 비판하여 심한 논란이 일어났는데 이때 그를 두둔하여 대간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고관 대직을 역임하지 않았지만 세신(世臣)의 후예답게 깨끗하고 성실하게 생애를 보냈다. 이조참판에 추증되었으며, 안동 병산서원(屏山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문집(『修巖集』)이 있다.<sup>34)</sup>

② **졸재(拙齋) 유원지(柳元之, 1598~1678)**: 선조 31년에 태어나 숙종 4년에 죽었다. 초명은 경현(景顯). 자는 장경(長卿), 호는 졸재(拙齋), 서애의 손자. 아버지 유여(柳柳)와 어머니 남양(南陽) 홍씨(洪氏) 사이에 독자로서 하회에서 태어났다. 아버지의 형제는 네 명이었는데 모두 일찍 세상을 떠났다.<sup>35)</sup> 아버지 유여는 졸재가 8세 되던 해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여의었다. 또 10세 때 할아버지 서애가 세상을 떠났다. 유여의 동생(졸재의 삼촌)인 수암(修巖) 유진(柳珍)만이 우복 정경세 문하에 수학하여 학문을 성취해 가학을 이었는데<sup>36)</sup>, 졸재는 어려서 서애와 수암의 문하에서 공부하였고, 또한 우복에게서도 배웠다. 일찍이 황간(黃澗)과 진안(鎭安) 등지의 현감(縣監)을 역임하였다.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 때에는 안동지방의 의병장 이홍조(李弘祚)와 함께 활약하였다. 학문에 열중하여 사서오경과 제자백가에 능하였으며, 특히 성리(性理)·이기(理氣)·상수(象數)·천문·지리·예설 등에 통달하였다. 안동의 화천서원(花川書院)에 봉향되었다. 저서로는 문집(『拙齋集』)이 있다.<sup>37)</sup>

③ **어은(漁隱) 유천지(柳千之, 1616~1689)**: 광해 8년에 태어나서 숙종 15년에 죽었다. 진(袵)의 아들. 호는 어은(漁隱). 일찍부터 명망이 높아서 천거

3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7, 123쪽과 『儒敎大事典』, 1115~1116쪽 참조. 기타, 『修巖集』, 『光海君日記』, 『仁祖實錄』, 『嶺南人物考』를 참조할 것.

35) 이에 대해서는 琴章泰, 『退溪學派와 理淸학의 전개』, 129쪽과 豊山柳氏世譜刊行所 편, 『豊山柳氏世譜』를 참조할 것.

36) 가계의 내막에 대해서는 주(12)를 참조 바람.

3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7, 96쪽과 『儒敎大事典』, 1107쪽 참조. 기타, 『拙齋集』, 『嶺南人物考』를 참조 바람.

되어 유일(遺逸)로 지평과 장령을 지냈다. 세 고을을 맡아 지냈으며 모두 거사비(去思碑)가 있다.<sup>38)</sup>

④ 강고(江臯) 유심춘(柳尋春, 1762~1834) : 영조38년에 태어나 순조34년에 죽었다. 자는 상원(象遠)이고, 호는 강고(江臯)이다. 서애의 7대손, 즉 수암 유진의 6대손이며 낙파(洛坡) 유후조(柳厚祚, 1798~1876)의 아버지이다. 그는 열살 때 외사촌인 조목수(趙沐洙), 조학수(趙學洙)에게 글을 배우고, 27세 때에 정종로 문하에 다녔다. 학행으로 천거되어 세자익위사익찬(世子翊衛司翊贊)을 거쳐 익위(翊衛)가 되었다. 1800년(정조24) 경연을 열어야 된다고 상소하였다. 1830년(순조 30) 왕의 하교로 3대가 과거에 급제한 것을 치하하고 돈녕부(敦寧府)의 도정에 임명하였고, 1854년(철종 4) 아들 후조(厚祚)가 급제하였으므로 다시 통정대부에 올랐다. 평소에 『주자대전(朱子大全)』을 탐독하여 성리학에 조예가 깊었으며 시문에도 능하였다. 1847년에 전북 장수 도암서원(道巖書院)에 배향되었다. 저서로는 문집(『江臯集』) 있고 『검설(儉說)』 『호군지법(犒軍之法)』 『농서(農書)』 『주서차의(朱書筭疑)』 등이 있다.<sup>39)</sup>

⑤ 낙파(洛坡) 유후조(柳厚祚, 1798~1876) : 정종 22년에 태어나 고종 12년에 죽었다. 자는 재가(載可), 호는 낙파(洛坡) 또는 낙초(洛樵), 매산(梅山)·영매(嶺梅)이다. 청백리 유심춘의 아들이다. 1858년(철종 9) 정시문과에 급제한 뒤 부사·부호군을 지내고, 1864년(고종 1)에 이조참판, 이듬해 공조판서를 지냈으며,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남인계 인사 중용책에 따라 1866년 우의정에 이르렀다. 같은 해 주청사(奏請使)로 청나라에 다녀와 그곳 서양인들의 동정을 알렸다. 병인양요 때에는 상주에 살던 아들 주목(疇睦)에게 의병을 일으키게 하였다. 1867년 좌의정에 오르고 1872년 판중추부사로 퇴관하고 봉

38)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豐山柳氏世譜刊行所 편, 『豐山柳氏世譜』

韓國人文科學院編輯部 편, 『韓國歷代邑誌17·商山誌』, (韓國人文科學院, 1991)

상주군문화공보실 편, 『상주의 얼』, (장왕출판사, 1985), 406쪽.

3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7, 76쪽 참조. 기타, 『正祖實錄』, 『國朝人物考』를 참조 바람.

조하(奉朝賀)가 되었다. 시호는 문헌(文憲)이다.<sup>40)</sup>

⑥ 계당(溪堂) 유주목(柳疇睦, 1813~1872): 호는 계당(溪堂), 유일(遺逸)로 벼슬이 도사에 이르고 많은 제자를 길러냈다.<sup>41)</sup> 문집으로 『계당집(溪堂集)』이 있다.<sup>42)</sup> 현재까지 계당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 그러나 지역사의 연구에 주요한 인물로 생각된다.<sup>43)</sup>

### (3) 기타의 계승자들

① 규천(규川) 전극항(全克恒, 1591~1636): 선조 24년에 태어나 인조 14년에 죽었다. 자는 덕문(德文), 호는 규천(규川), 서애와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 1554~1637)의 문인인 사서(沙西) 전식(全湜, 1563~1642)의 아들이다. 이준의 문하생이기도 하다. 광해 4년 진사가 되고 인조 2년 문과에 올라 한림(翰林)을 거쳐 정랑(正郎)에 이르고 병자호란에 절사(節死)하였다. 도승지를 추증하고 상주 충열사(忠烈祠)에 배향하였다.<sup>44)</sup>

② 백원(百源) 신석번(申碩蕃, 1596~1675): 선조29년에 태어나 숙종 1년에 죽었다. 본관은 평산(平山), 자는 중연(仲衍), 호는 백원(百源), 선무량 신근(申謹)의 아들, 인조11년(1633년) 사마시에 합격, 1641년에 왕자사부, 1644년에 경기전참봉(慶基殿參奉)을 역임하고 효종 때 유일(遺逸)로서 천거를 받아 형조좌랑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현종 때에도 사복시주부·공조정랑·상운도찰방(尙雲道察訪)·종부시주부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양하고 현

4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7, 176쪽 참조. 기타, 『高宗實錄』, 『日省錄』, 『國朝榜目』, 『溪堂集』을 참조 바람.

41) 계당의 제자에 대해서는 『溪堂集』의 「溪堂先生文集附錄: 及門錄」(914~922쪽)을 참조 바람.

42) 계당에 대해서는 『溪堂集』, 韓國人文科學院編輯部 편, 『韓國歷代邑誌17·商山誌』, (韓國人文科學院, 1991), 豊山柳氏世譜刊行所 편, 『豊山柳氏世譜』, (回想社, 1965), 상주군문화공보실 편, 『상주의 얼』을 참조.

43) 이러한 지적은 李佑成, 「溪堂集 解題」, 『溪堂集』, 8쪽을 참조 바람.

44) 상주군문화공보실 편, 『상주의 얼』, 103~104쪽 참조. 그리고 陸萬中·沈奎魯 편, 「尙州(一)」[蔡弘遠 外, 『嶺南人物考』, 姜周鎭 편역], 247~248쪽 참조.

종9년(1668년) 이후로 진선(進善)·장령·사업(司業)의 벼슬에도 부임하지 않았고 숙종 즉위년 다시 장령에 임명되었으나 나이 79세로 병까지 들었으므로 역시 사퇴하였다. 이듬해 당상관에 올랐으나 교지가 도착하기 전에 죽었다. 송시열(宋時烈), 송준길(宋浚吉) 등을 흠모하였으며 문장에 능하고 경전에 밝았다. 이조참의에 추증되었다. 저서로는 『백원문집(百源文集)』이 있다.<sup>45)</sup>

③ 반간(槃澗) 황유(黃紉, 1578~1626): 선조11년에 태어나 인조 4년에 죽었다. 본관은 장수(長水), 자는 회보(會甫), 호는 반간(槃澗), 현감 황준원(黃俊元)의 아들이다. 광해군4년(1612년) 생원이 되고 이듬해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1616년 승정원주서가 되었다. 1625년(인조3년) 지평이 되고 이어 경성판관을 역임하였다. 어릴 때부터 뜻이 높고 재능이 뛰어났으며 관직생활 중에는 거취를 분명히 하였다.<sup>46)</sup>

④ 무주(無住) 홍호(洪鑄, 1586~1646): 선조19년에 태어나 인조24년에 죽었다. 본관은 부계(缶溪), 자는 숙경(叔京), 호는 무주(無住)·동락(東洛). 대제학 귀달(貴達)의 후손으로 무반인 홍덕손(洪德孫)의 아들이다. 나이 20세에 유성룡을 만났으며 그때 그에게 크게 칭찬을 받은 적이 있다. 선조39년(1606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에 들어갔다. 광해군이 즉위하자 권력을 쥐고 있던 이이첨(李爾瞻)의 아들 이대엽(李大燁)을 승무원에 등용하자는 시론이 있었으나 이를 극구 반대하였다. 광해군4년(1612년) 권지(權知), 이듬해 전적을 거쳐 박사(博士)에 이르렀다. 그 뒤 외직으로 안동부제독으로 자청하여 나갔으며, 인조 즉위년(1623년)에 병조정랑이 되었다. 이듬해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나 우복이 호소사(號召使)가 되자 그의 종사관으로 난의 진압에 공헌하였다. 그러나 그는 인목대비의 서궁 유폐와 폐모에 반대하다가 인조반정 후 아들과 함께 자살한 박승종(朴承宗)의 적몰사(籍沒事)에 공정한 견해의 상소를 올렸는데, 거기서 훈신들의 미움을 사 영변판관으로 좌천되었다. 그 뒤 1628년 예조좌랑, 1630년 사예(司藝), 이어 종부사정(宗簿寺正)과 장령·승지·공조참의·홍해군

45) 이에 대해서는 『百源文集』과 『仁祖實錄』, 『孝宗實錄』, 『顯宗實錄』, 『肅宗實錄』참조.

46) 『光海君日記』, 『仁祖實錄』, 『國朝榜目』, 『號譜』, 『大山集』참조.



수 등을 거치고 1636년 병조호란 때에는 용병술로 포수를 지휘한 바 있다. 1640년 예조참의·동부승지, 1643년 우부승지 등을 거치고 1645년 대사간이 되었다. 인품이 깨끗하고 영욕과 이해타산이 없어서 강한 자로 평을 받았으며, 문신이면서도 용병에 관하여 지식이 많아, 국책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저서로는 『무주일고(無住逸稿)』가 있다.<sup>47)</sup>

⑤ 서곡(鉏谷) 이원규(李元圭. ?~?): 창석(蒼石) 이준(李峻. 1560~1635)의 아들이며 대구(大圭)의 아우이다. 호는 서곡(鉏谷)이다. 문과에 급제하였고, 천거로 승정원 주서(注書)가 되고 봉상사정(奉常寺正)에 이르렀다. 성질이 강직하고 학문과 행실이 세상에 높히 알려졌다.<sup>48)</sup> 광규(光圭)는 원규의 아우인 것 같다.

⑥ 북계(北溪) 조광벽(趙光璧. 1566~1642): 명종 21년에 태어나 인조 20년에 죽었다. 자는 여완(汝完), 호는 북계(北溪), 본관은 풍양(豐壤)이다. 선조 병인(丙寅)<sup>49)</sup>에 진사가 되고 행의(行誼)로서 천거되어 참봉(參奉)을 거쳐 찰방(察訪)에 이르렀다. 서애를 사사하였고 우복과 창석(蒼石)과 더불어 강론하였고 서로 연마하였으며, 임진란 때 21세의 나이로 우복과 같이 창의(倡義)하였다. 상주 연악서원(淵嶽書院)에 배향되었다.<sup>50)</sup>

⑦ 국원(菊園) 김정건(金廷堅. 1576~1645): 선조 9년에 태어나 인조 23년에 죽었다. 자는 훈경(勳卿), 호는 국원(菊園), 본관은 의성(義城)이다. 광해 4년에 생원이 되었다. 일찍이 정한강(鄭寒岡)의 문하에 출입하여 위기(爲己)의 학문(學文)을 들어서 얻었(得聞)고, 만년에는 우복을 좇아 교유하였다. 상주 낙암사(洛巖祠)에 배향되었다.<sup>51)</sup>

⑧ 묵계(默溪) 조희인(曹希仁. 1578~1660): 선조 11년에 나서 현종 원년

47) 『無住逸稿』, 『光海君日記』, 『仁祖實錄』, 『國朝榜目』, 『國朝人物考』, 『嶺南人物考』 참조.

48) 상주군문화공보실 편, 『상주의 얼』, 411쪽.

49) 시기가 불명확함.

50) 陸萬中·沈奎魯 편, 『尙州(一)』[蔡弘遠 外, 『嶺南人物考』, 姜周鎭 편역], 243쪽 참조.

51) 陸萬中·沈奎魯 편, 『尙州(一)』[蔡弘遠 外, 『嶺南人物考』, 姜周鎭 편역], 245쪽 참조.

에 죽었다. 자는 여선(汝善), 호는 묵계(默溪), 본관은 창녕(昌寧)이다. 광해 8년에 진사가 되고 인조 5년에 문과에 올라 벼슬이 상례(相禮)에 이르렀다. 일찍이 우복에게 수업하여 득력(得力)이 가장 많았다. 광해 4년에 역옥(逆獄)이 크게 일어나 우복이 무고(誣告)를 입어 체포·계류되었다. 그때에 옥사(獄事)가 지극히 엄중하여 비록 지극히 가까운 사람이라도 화를 두려워하여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하는데 시종 그만이 옥문밖에 돌고 있었다.52)

⑨ 백담(白潭) 조우신(趙又新, 1583~?): 선조 16년에 태어났다. 자는 여집(汝緝), 호는 백담(白潭), 본관은 한양(漢陽)이다. 광해 5년 진사가 되고 인조 22년 추천으로 참봉(參奉)을 제수하였다. 인조 26년 문과에 올라 정자(正字)가 되었다. 우복과 창석(蒼石) 문하에 출입하여 경학(經學)과 예서(禮書)를 질문하여 얻은 바가 많았다.53)

⑩ 와운(臥雲) 강용양(姜用良, 1608~?): 선조 41년에 태어났다. 자는 경우(慶遇), 호는 와운(臥雲), 본관은 재령(載寧)이다. 우복과 월간(月澗)·창석의 문하에 드나들었다. 상주 연악서원(淵嶽書院)에 배향되었다.54)

⑪ 이일규(李一圭, ?~?): 월간(月澗) 이전(李堧, 1558/明宗13~1648/仁祖 26)의 아들. 벼슬이 사축(司畜)으로 있을 때 정묘호란이 일어났다. 상주에서 의병을 모으는 유사가 되었다.55) 덕규(德圭)와 신규(身圭)는 일규의 아우인 것 같다.

⑫ 불환정(不換亭) 황덕유(黃德柔, ?~?): 반간(槃澗) 황유(黃紐)의 아들. 호는 불환정(不換亭). 음사(蔭仕)로 군수에 이르러 치적이 많음. 병자호란 때 남한 산성에 호종하였다. 원종공신(原從功臣)이 되었다.56)

52) 睦萬中·沈奎魯 편, 「尙州(一)」[蔡弘遠 外, 『嶺南人物考』, 姜周鎭 편역], 245 ~ 246쪽 참조.

53) 睦萬中·沈奎魯 편, 「尙州(一)」[蔡弘遠 外, 『嶺南人物考』, 姜周鎭 편역], 246쪽 참조.

54) 睦萬中·沈奎魯 편, 「尙州(一)」[蔡弘遠 外, 『嶺南人物考』, 姜周鎭 편역], 255 ~ 256쪽 참조.

55) 상주군문화공보실 편, 『상주의 얼』, 411쪽.

56) 상주군문화공보실 편, 『상주의 얼』, 425쪽 참조.

⑬ 신증(申楫. ?~?) : 본관은 평산이며 1606년(선조 39) 문과에 급제하였고 벼슬이 부사에 이르렀다.<sup>57)</sup>

⑭ 외처암(畏棲庵) 김추임(金秋任. 1592~1654): 선조 25년에 태어나 효종 5년에 죽었다. 자는 만열(萬悅)이고 호는 외서암(畏棲庵)이다. 본관은 의성이다. 부제학 우굉(宇宏)의 증손이다. 광해 8년에 진사가 되고 천거되어 참봉이 되었으나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광해군의 정치가 문란하자 과거 보기를 포기하고 학문에 전념하였다. 생활이 법도에 맞아서 향리에 법도가 잡혔다 한다.<sup>58)</sup>

## 5. 맺음말

지금까지 우리는 상주지역에서 전개한 우복의 학맥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우복 학맥은 조선시대 신유학이 영남 지역에서 꽃 피었던, 그러나 숨어 있던, 사상적 「지도」의 발견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지도는 완벽한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완벽한 어떤 모습을 재구성하는 길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의 꼭지·단서를 제공한 것에 불과했다고 말해야 옳을 것이다. 왜냐하면 위에서 파악한 20여 인물 그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외의 관련된 인물에 대해서도 더욱 더 깊이 있고 폭 넓게 맥락을 짚어보며 그 사상사적인 의의를 찾아내야 그 전모를 밝혔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학통 계승의 진위 여부는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어 「성급한 판가름」을 내릴 측면이 있기에, 그것을 가려내는 데에는 적어도 많은 사료를 참조·분석하면서 이뤄져야 한다.<sup>59)</sup>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발표에서 충실하게 다루지 못한, 관련 인물들이 남긴 「문집」에 대한 충실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57) 상주군문화공보실 편, 『상주의 얼』, 436쪽 참조.

58) 상주군문화공보실 편, 『상주의 얼』, 390~391쪽 참조.

59) 이에 대해서는 김종석, 「『陶山及門諸賢錄』과 退溪 學統 弟子的 범위」, 『한국의 철학』제26집,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1998.12.31)가 좋은 참고가 될 것 같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역사, 지방사의 의미를 재인식해 가는 것은 지방이 가진 「내재적 변화의 중시」이고, 중앙(혹은 중심)에 대해 「지역연구의 중시: 공간적 차별화/기층사회의 중시」라고 말할 수 있다.<sup>60)</sup> 앞으로 상주 지역에 있어서 우복학맥의 검토는 「가학의 계승자」와 「서에 가문 내의 계승자」, 그리고 「기타의 계승자」 사이에 보다 상세한 관련성이 논의됨으로써 깊어져 가야 한다. 그리고 이런 미시적인 작업을 통해서 그들의 생애와 사회적 활동, 사상 등이 재구성되어야 한다.

앞으로 많은 과제가 남아 있겠지만, 퇴계학이 상주 지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용·정착·토착화 해 갔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 작업은 한국의 신유학이 중국의 「신유학」전개와 또 다른 양상과 국면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이른바 그 다양성과 독자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생생한 증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 참고자료

『朝鮮王朝實錄』

柳成龍, 『西厓集』(한국문집총간52)

鄭經世, 『愚伏集』(한국문집총간68)

豊山柳氏世譜刊行所 편, 『豊山柳氏世譜』, 回想社, 1965

鄭經世, 『愚伏集』, 成均館大學校, 1977

柳疇睦, 『溪堂集』, 亞細亞文化社, 1984

愚伏先生記念事業會編, 『晉陽鄭氏族譜·乾』, 大譜社, 1993

60) 이 점에서 서구=중심에 서서 중국=주변을 바라보고자 했던 종래의 서구중심의 중국연구를 비판하고, 「중국중심의 역사를 향하여!」를 외치는 폴 A. 코언의 입장은 우리 전통사회의 지방(및 지역) 연구에도 하나의 좋은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폴 A. 코언, 『미국의 중국 근대사 연구』, 장의식 외 옮김, (고려원, 1995)를 참조할 것.

- 蔡弘遠 外, 『嶺南人物考』, 姜周鎭 편역, 探求堂, 1967
- 國會圖書館, 『國朝傍目』, 서울대학교출판부, 1971
- 국사편찬위원회 편, 『輿地圖書』下, 探究堂, 1973
- 서울대학교 도서관 편, 『國朝人物考』上·中·下,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8
- 李熙大 편저, 『退溪門人錄』, 1983
- 張志淵, 『朝鮮儒教淵源』(上篇), 柳正東 譯, 삼성미술문화재단, 1984
- 李重換, 『擇里志』, 『韓國의 思想 大全集』·24, 鄭然倬 옮김, 同和出版公社, 1985  
(重版)
- 韓國人文科學院編輯部 편, 『韓國歷代邑誌17·商山誌』, 韓國人文科學院, 1991
- 愚伏先生記念事業會編, 『晉陽鄭氏族譜(乾·坤)』, 대구: 大譜社, 1993
- 유교사전편찬위원회, 『儒教大事典』, 박영사, 1990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웅진출판사, 1993(3쇄)
- 李熙昇 외 5인 편, 『韓國人名大事典』, 신구문화사, 1995
- 柳洪烈 책임감수, 『韓國史大事典』, 고려출판사, 1996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인물대사전』, 중앙M&B, 1999
- 玄相胤, 『朝鮮儒學史』, 민중서관, 1949
- 琴章泰·高光植, 『儒學近百年』, 博英社, 1984
- 劉明鐘, 『朝鮮後期性理學』, 이문출판사, 1985
- 상주군문화공보실 편, 『상주의 얼』, 장왕출판사, 1985
- 매일신문사, 『嶺南學派』, 영인본(비매품)
- 李樹健,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一潮閣, 1995
- 폴 A. 코언, 『미국의 중국 근대사 연구』, 장의식 외 옮김, 고려원, 1995
- 우복선생기념사업회 편, 『愚伏鄭經世先生研究』, 태학사, 1996
- 상주산업대학교 상주문화연구소 편, 『尙州 咸昌 牧民官』, 한신문화인쇄사, 1997
- 東方學會 편, 『嶺南學派의 研究』, 경상북도, 1998
- 김교빈 외, 『조선유학의 학파들』 예문서원, 1998

李樹健,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一潮閣, 1995

琴章泰, 『退溪學派와 理 철학의 전개』,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김종석, 「『陶山及門諸賢錄』과 退溪 學統 弟子의 범위」, 『한국의 철학』제26집,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1998.12.31

김호종, 「서애 유성룡과 안동·상주 지역의 퇴계학맥」, 『경북대 퇴계연구소 제17차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퇴계학맥의 지역적 전개』, 경북대 퇴계연구소, 2000.5.19

최재목, 「매일시론: 지금 우리에게 '서울'은 희망인가?」, 『매일신문』, 2000. 9. 22